

‘상생’ 첫 결실 광주전남연구원 8월 출범

5일 광주·전남 발전연 해산

24일 통합연구원 창립총회

민선 6기 광주·전남 상생발전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원 통합 작업이 오는 8월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에 들어설 통합청사 신축으로 인해 물리적 통합은 오는 2017년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2일 “지난 4월말 통합조례안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시·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시·도와 양 연구원은 공동으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일정과 신규 설립되는 통합연구원의 내부규정 15개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연구원 출범을 위해 시·도는 먼저 오는 5일 연구원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연구원 해산, 청산인 선임, 잔여재산 처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통합연구원 설립을 위한 발기인은 시·도가 9명씩 18명으로 구성하여, 통합연구원 창립(발기인) 총회를 오는 24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창립총회에서는 통합연구원의 이사장, 이사, 감사를 선임하고 정관 및 각종 규정, 예산 및 사업계획서 등을 확정하게 된다.

통합연구원을 이끌어갈 원장은 8월말까지 선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은 통합조례와 정관에 따라 7월에 모집공고를 하고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추천, 이사회 의결, 시·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시·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통합연구원을 혁신적으로 이끌어갈 인사를 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원장공개 모집 규정도 보완했다.

이 외에도 통합연구원 정원은 현행 시·도 연구원 정원 53명으로 하고 근무상한연령(정년)도 현행 60세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통합연구원 청사가 마련되기까지 지역 본부로 운영되는 동안에는 각 본부마다 시·도의 정책연구 특성을 반영해 3개의 연구실을 설치하고 양 연구원 인력을 전공 분야를 고려해 배치하기로 했다.

한편 연구원은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 1995년 광주시가 출연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되다가 2007년 분리됐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조선대~송정역 광역 좌석버스 신설

시민들 “버스요금 우회 인상 아니냐”

“일반버스 요금 받아야”

광주시가 좌석버스를 신설하면서 요금을 1800원으로 책정해 시민들 사이에 선 대중교통 요금의 과다한 우회인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빛가람 혁신도시로 연결될 경우에는 요금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3일부터 조선대학교~광주 송정역을 운행하는 광역좌석 02번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 시내 주요 시설과 혁신도시 간 신속한 연계를 목표로 신설되는 좌석 02번은 고급리무진 버스로서 전면 좌석제로 운행되며, 조선대 해오름관(기점)~도산동(송정역)까지 당분간은 하루 12대가 14~20분간격으로 왕복 109회 운행된다. 신차 도입을 마치는 8월 중순부터는 10대를 추가 운행해 총 22대가 하루 9~12분 간격으로 왕복 176회 운행될 예정이다.

시내간 요금은 1800원(현금 기준)으로, 광주권 대중교통협약에 따라 일반 시내버스(1200원)에서 좌석 02번으로 환승시 600원을 추가 부담해야하며, 좌석 02번에서 일반시내버스로의 환승은 현행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내간 요금은 1800원(현금 기준)으로, 광주권 대중교통협약에 따라 일반 시내버스(1200원)에서 좌석 02번으로 환승시 600원을 추가 부담해야하며, 좌석 02번에서 일반시내버스로의 환승은 현행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운행 구간은 조선대~국립아시아문화전당~대인시장~광주역~전남대사거리~경신역~광천터미널~시청~농협운전지점~김대중컨벤션센터(마복역)~공항역~광주송정역까지이며, 총 20.9km로 유동인구가 많은 광주의 주요 거점을 운행한다. 나주 혁신도시까지 노선이 연장될 경우 광주~나주 간 10km정도의 거리가 추가돼 요금도 600원(2km당 120원) 인상된다.

시민 윤영민(48)씨는 “요금에 비싼 버스노선을 신설할 이유를 모르겠다. 사실상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 것이 다른 것 아니냐”면서 “공항버스인 1000번도 사실상 좌석버스인데 일반 시내버스와 똑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초 좌석 02번은 광주 주요대학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역과 터미널, 상무지구,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신설할 예정이었지만 나주시와 노선 협의가 되지 않아 우선 조선대~도산동(송정역)까지만 운행하게 됐다”면서 “광역좌석 직행인 만큼 요금이 높은 것이며, 서울은 1950원 등으로 전국 대비 저렴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16년만에 ... 주민번호 유지

정부가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해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 전체를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체 규모는 4200만여 장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1999년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고, 청소년들이 주류·담배 구입 목적으로 손쉽게 위변조를 하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져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불편한 경우도 늘어났다.



빛고를 생활권 단체장 간담회

빛고를 중추도시 생활권 단체장 정책 간담회가 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윤장현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 광주 인근 단체장들이 손을 맞잡고 협력과 상생을 약속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형배 광산구청장, 홍영민 함평 부군수, 강인규 나주시장, 구중근 화순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윤장현 광주시장, 최형식 담양군수, 최영호 남구청장, 송광운 북구청장, 임우진 서구청장, 임영일 동구청장 권한대행.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중국판 세월호’ ... 승객 두고 탈출한 비겁한 선장

458명 탑승 유람선 양쯔강서 뒤집혀

12명 구조·5명 사망 나머지 생사불명

지난 1일 밤 중국 양쯔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승선 규모나 배 안에 승객을 놔두고 선장 먼저 먼저 구조된 상황 등에서 여러모로 세월호 참사를 연상케 한다.

아직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고 사고원인도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번 사고도 세월호처럼 대형 참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쯔강에서 전복된 선박 ‘동방즈싱’(東方之星·동방의 별)에는 승객 406명과 여행사 직원 5명, 승무원 47명 등 총 458명이

타고 있었다. 승선자 명단이 발표됐으며 한국인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지난해 4월 16일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에는 승객과 승무원 476명이 탑승했다.

호화유람선 동광즈싱에 탄 승객은 대부분 50~80대의 장년층과 노인이라고 중국 관영 CCTV는 전했다. 승객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가던 나이 어린 학생들이었던 세월호와는 다른 점이다.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배에서 탈출하거나 구조된 사람은 이날 오전 11

시 10분 현재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한 12명이 불타고 5명은 사망했다. 나머지 승객 등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늦어지면서 인명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때는 선장을 비롯한 일부 승무원의 무책임한 대응과 당국의 일사불란한 구조 실패로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 304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중국 관영 인터넷 매체 펑파이(澎湃) 신문 등에 따르면 동광즈싱 선장은 사고 발생 직후 선원들과 함께 해역을 쳐 물으로 올라왔다. 선장은 갑작스러운 회오리바람을 만나 유람선이 뒤집혔다고 중국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사고 상황이 정확히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선장과 승무원들이 승객 대피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사고를 인지하고 제 목숨부터 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더구나 동광즈싱이 2분 만에 가라앉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사고 상황과 대피 요령 등을 고지하는 선내 방송이 아예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이준석 선장은 승객과 선원에 대한 퇴선 명령도 없이 먼저 탈출한 혐의로 살인죄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고 상고된 상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보험료 일부 환급 검토

새정치 김승남 의원 밝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사진)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뒤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1년 단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들이 농작물 피해가 없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 이듬해 보험 재가입 비율이 보험금을 받은 농가에 비해 적다”며 “그래서 보험금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을 농식품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험금 환급률은 연구를 거쳐 결정될 것이고, 만약 환급제도 도입이 결정된다면 내년 이후부터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김 의원은 그동안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환급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보험료 환급제도를 도입하면 재가입률이 높아지고 태풍과 풍수해 등 재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금융사들은 납입한 보험금의 상당액을 농민들에게 환급해주고 정부는 예산으로 보전해주면 환급제도의 실효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가들은 46개 품목에 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만9000여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13만4000ha다. 면적기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비율은 16.2%다.

올해 4월말 기준, 전남에서는 7442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7958ha다. 면적기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비율은 17%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두입신탁 자산 2,200억 달성!!
 조합원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달 감사이벤트
10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2.60% (1억이상 2.60%+@)
 수시 입출금식 예금 단 하루만 맡기셔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알찬자유예탁금 연 2.10% (금액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 신탁예금
 - 1인당 8,000만원까지 세제 혜택 (61세 이상) -

두입신탁 대구동호회 회원모집중

동강대학 + 동광대우 + 두입신탁
 263-0136 (말바우 사거리)

두입신탁 울곡지점 (두암중학교 입구)
 264-1232

두입신탁 첨단지점 (호반아파트 정문 맞은편)
 572-9511

당신의 광경! 절음의 광경! U-square

수비드[sous-vide] 맥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平日 12,500원	8,500원	5,000원
토일, 휴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맥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